

『제임스 조이스 저널』
제5집(1999) 365 - 396

『더블린 사람들』과 『피네간스 웨이크』에 담긴 불교사상적 함의(含意) —Epiphanic Mode와 Hindu-Buddhistic Allusion을 중심으로—

박 대 철

I

On the tree of Indian wisdom there is no fairer flower than the Upanisads, and no finer than the Vedanta philosophy. This system grew out of the teachings of the Upanisads, and was brought to its consummate form by the great Sankara(born 788 A. D., exactly one thousand years before his spiritual kinsman Schopenhauer). Even to this day, Sankara's system represents the common belief of nearly all thoughtful Hindus, and deserves to be widely studied in the Occident.—Paul Deussen, Outline of the Vedanta (London: Luzac & Co., 1907), 7.

제임스 조이스(1882-1941) 문학에 대한 비평도구들은 1967년 제임스 조이스 재단(James Joyce Foundation)의 설립을 기점으로 하여, 주로 경제적 하부구조가 확보된 미국을 중심으로 점차 유럽대륙까지 활발하게 전개되어 나갔으며, 이러한 영·미 문화권의 지적(知的)·제도적 토양에 뿌리를 둔 풍부하고 다양한 조이스문학 연구는 이른바 ‘조이스 산업’(Joyce Industry)의 명성을 정당화시키기에 충분하였다. 또한 영미 모더니즘문학의 핵심그룹으로 평가되는 ‘The Men of 1914’의 일원으로서의 조이스는 20세기의 혁명적인 문학적 움직임, 즉 모더니즘을 선도함으로서 영미문학사상 가장 영향력있는 작가로서의 지위를 누려왔음은 주지의 사실에 속한다.¹⁾ 모더니즘은 그러나 이제 ‘흔적’을 남긴 채

과거의 유행이 되어가고 있으며, 한편으로 다원적이고 전향적(轉向的)인 비평 접근의 움직임이 목격되는 포스트모더니즘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다. 조이스 또한 어떤 단일한 사조(思潮)나 이데올로기의 틀로 묶이기를 거부하는 피안(彼岸)의 작가라는 점에서 다원적 접근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간주되는 바, 이 점에서 필자는 다음의 언설에 주목하고자 한다.

Meaning is always produced in a social space filled with texts,... Moreover, changing historical conjunctures demand changing readings: the choices available for the reader of *Ulysses* in 1922 were vastly different from those available in 1983, and it is possible to argue that a reading which was valid and valuable in the former year is wholly invalid and inadequate now.

(Attridge & Ferrer 4)

이러한 지적은 가다머(Hans-Georg Gadamer)의 해석학 이론이 시사(示唆)하고 있는 것처럼 텍스트의 과거와 독자의 현재와의 만남을 통한 역동적 의미산출이 가능하다는 이해에 바탕을 두고 있다(김성곤 89). 같은 맥락에서 데트마르(Kevin J. H. Dettmar)는 『더블린 사람들』(*Dubliners*)의 포스트모던적 책읽기에 관심을 보이면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The Illicit Joyce of Postmodernism* positions itself within both Joyce criticism and the ongoing debate over modernism and postmodernism by looking closely at three of Joyce's four major prose texts, ... and articulating a postmodernism reading of two of them—*Dubliners* and *Ulysses*."

(*The Illicit Joyce of Postmodernism* 9)²⁾

1) 미국의 『TIME』은 1998. 6. 8 日 특집란에서 James Joyce를 20세기 인류의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던진 '금세기의 인물' 20人중의 예술인으로 선정·발표하면서, Joyce는 '문학과 현실사이의 괴리(one of the things I [James Joyce] could never get accustomed to in my youth was the difference I found between life and literature)'라는 자신의 화두(話頭)를 내려놓음으로써 '20세기 소설문학에 혁명을 불러 일으켰다(Joyce dedicated his career to erasing it and in the process revolutionized 20th century fiction.)'고 평가한 바 있다.

2) *James Joyce Literary Supplement*(Fall 1997), 20.에서 R. Brandon Kershner는 Dettmar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Dettmar...argues—or almost argues—that the *Dubliners* stories are

이러한 개괄적 동향을 전제로 한 조이스문학 연구의 새로운 시론(試論)으로서의 본 논문은 이미 입증된 포스트모더니즘적 접근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개진될 것이며, 특히 포스트모더니즘의 “values from nature, spiritual, transience, Zen, counter Western ‘ways’ or metaphysics, Buddhism, Hinduism, Western mysticism, transcendentalism, witchcraft, the occult”(Ihab Hassan 57) 등의 양상이 동양사상—제한적으로 선(禪)불교 및 인도철학—의 색채를 띠고 있음에 착안하여 필자는 조이스의 초기작품 『더블린 사람들』에 담긴 ‘에피파니’(Epiphanic Mode)를 선불교의 돈오(頓悟)³⁾ 사상적 범주에서 고찰하여 그 문학적 함의를 추출함과 동시에, 마지막 작품 『피네간스 웨이크』(*Finnegans Wake*)전편에 걸쳐서 드러나고 있는 「바가바드 기타」(*Bhagavad-Gita*), 「우파니사드」(*Upanishads*) 등의 인도철학(Indian Allusion) 및 불교사상의 수용양상을 집중조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조이스 소설의 ‘에피파니’의 경우 그 자체를 동양사상적 관점에서 명시적 논의를 전개한 선행연구가 전무하여 그 접근구도가 의식의 표면위로 떠오르기란 쉽지 않으나, 우선 일차적인 문헌 자료들로부터 논제를 담아낼 개념적 틀을 구축, 이를 유용한 준거로 삼아야 하는 몫이 제한된 범위내에서 논의가 개진될 것이며, 『피네간스 웨이크』탐색의 경우 이미 조이스 자신이 당시 유럽을 풍미했던 유사불교적 신지학(神智學; Theosophy)의 문학적 변용(Hart 49)에 있어서 산포적(散布的) 지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필자 역시 그 침전물의 추출에 국한될 것이다. 한편 시대적 상황에 민감했던 조이스는 신지학의 영향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였으며 따라서 동양사상의 그림자를 비켜갈 수 없었음은 당연한

postmodern, that *Ulysses* is half modern and half postmodern, and that *Finnegans Wake* is a less interesting text than either of these.”

- 3) David J. Kalupahana는 자신의 *Buddhist Philosophy: A Historical Approach*(Honolulu: Hawaii UP, 1976), 172-74.에서 禪불교의 인도 대승불교적 연원을 중관(中觀)사상의 공(空: śūnyatā)개념에 영향을 받은 ‘돈오’(頓悟: *tun-wu*)와 유식(唯識)철학의 교의를 보여주는 ‘점수’(漸修: *chien-hsiu*)의 두 분파로 보았다. 사유방식의 각도에서 고찰해 보면, Zen/Ch’an Buddhism의 돈오(頓悟; *subitism*=sudden awakening)는 일종의 신비주의적 색채를 띤 ‘직각적인 인식’(intuition) 방법이다. 그것은 개념·판단·추리의 논리 사유를 필요로 하지 않고, 외계사물에 대한 해석이나 경험의 장기적인 누적도 필요로 하지 않고, 다만 감성의 직관에 의해, 견성성불(見性成佛)의 관념에 의해, 순간의 생각에 의해 인식 대상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이재석 옮김, *중국문화개론* (서울: 동문선, 1991), 248. 이 점에서 Joyce의 Epiphanic Mode와 일치한다 하겠다.

일이었다(Hart 49). 더욱이 신지학이 조이스의 문학적 상상력에 중요한 요체로 작용했음을 말해주는 동생 스테니스라우스의 주장 역시 동일한 개념적 흐름을 타고 있다.

He [James Joyce] did, indeed, toy with theosophy as a kind of interim religion. His interest in it had been aroused by reading Yeats and Russell, and though he never belonged either to the Hermetic Society or to the Theosophical Society that existed in Dublin then and,...he read with serious intent expository works on theosophy by H. P. Blavatsky, Col. Olcott, Annie Besant, and Leadbeater.... (Stanislaus Joyce 140)

지금까지의 논의를 James Joyce=Theosophy=Oriental Thought(*Bhagavad-Gita*, Upanishads, Zen/Ch'an Buddhism)=Postmodernism의 순환적 도식으로 정리했을 때, '서양의 이성중심적 개념체제와 그것을 해체하는 동양적 직관 및 비이성적 감성중심 개념체제와의 화해'라는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W. Said 4)의 명제대로 '포스트모던시대에 서양의 작품을 읽는데 있어서 동양의 눈으로 보는 시각의 정당성'(이정호 33)을 확보한 셈이 된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의 대승적(大乘的)기류를 타고 우선 동양사상이 어떠한 역사적 경로를 거쳐 서구의 사유구조 속으로 유입되었는지, 그 본류를 이루는 신지학 운동(The Theosophical Movement)의 준동(蠢動)을 조이스문학 세계와의 긴장관계로 파악하면서 양자간에 어떠한 내재적 연관성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노출(露呈)할 것이다. 이어서 『더블린 사람들』의 주제로 부각되어 있는 '마비'(paralysis) 또는 '좌절'(frustration)을 <에피파니(epiphany): 마비(paralysis):: 돈오(*tun-wu*): 무명(*avijja*)>의 기본 가설 위에 올려놓은 다음, 그 '마비'의 양상을 불교의 '무명'(無明; *avijja*)으로 참칭(僭稱)하고, 동시에 주인공들이 마비의 와중에서 경험하는 '에피파니'를 선사(禪師)들의 깨달음의 방편으로서의 '돈오'(*tun-wu*)로 파악함으로써 작품속의 행간(行間)을 장식하고 있는 불교적 환경(Buddhistic Milieu)을 정리할 것이며, 동시에 『피네간스 웨이크』에 함장되어 있는 인도불교적 인용구조(Indian Allusion)를 발굴하는 데에 '무모한 도전'(audacious challenge)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결국 조이스문학과 동양사상 사이에 가로놓인 상당한 거리감을 무릅쓰고 조이스문학을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조류(潮流)에서 건져 올렸을 때, 그 포스트모더니즘의 양상이 마침 불교사상의 이념과 회통(會通)하는 점이 있다면, 바로 조이스문학을 불교(선불교와 인도불교)라는 '잘 닦인 거울'(a

nicely polished looking-glass)로 조망(眺望)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그 새로운 지평의 단초를 제공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II

20세기의 여명을 눈앞에 둔 세기말 서구의 시대적 상황은 향후 전개될 지적(知的)판도의 지각(地殼)변동을 예고하고 있었다(Dennis Brown 9) 그 동안 서구를 지배해 오던 관념적 합리주의가 벼랑 끝으로 밀려나게 되고, 이윽고 제 1차 세계대전(1914-18)이라는 비극적 시대상황의 돌출은 필연적으로 인간과 세계에 대한 시각(視角)교정을 재촉하게 되었는데, 적어도 서구 철학이 체감(體感)한 의식 세계의 전환점은 ‘이성(理性)의 조정자로서의 본래의 관념철학에서 행동과 모험, 영감(靈感)과 주술(呪術)—틸리히(Paul Johann Tillich)의 이른바 “dämonisch”한 세계로의 전환⁴⁾이라는 획기적 규모였다. 이러한 의식 세계의 긴박한 전환 속에서 과학과 종교 모두에 의해 인식될 수 있는 자연법칙(principles of nature)의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양자간의 갈등의 괴리를 메워주는 신지학이 태동하기에 이르렀다. 새로운 우주 원리의 인식 체계를 밝히면서 본격적인 동양사상 유입의 수문(水門)을 열었던 신지학은 불교(Buddhism)⁵⁾, 힌두

4) 정명환 외, *20세기 이데올로기와 문학사상*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7. 관념의 경직된 굴레를 걷어치운 철학은 의식의 역동적 분출을 열어 놓았으며, 그 파장은 문학에서의 ‘인식 저편의 자연적 삶’으로 이어지는 바, 이 점은 또 Theosophy의 바다를 건넌데 있어 동양사상—노장(老莊)사상 및 禪사상에 닿아 있다.

5) Joyce가 동양의 종교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은 1936년 훨씬 이전의 일이었으며, 이는 Theosophy를 통해서 가능했다: Joyce's interest in Eastern religions began long before 1936. It started in Dublin when 'Esoteric Buddhism' was a fashionable topic with George Russell and his circle.- James S. Atherton, *The Books at the Wake: A Study of Literary Allusions in James Joyce's Finnegans Wake* (London: Faber and Faber Limited, 1959), 225. 한편, 당시 서구에 유입된 Buddhism은 여러 분파였으나 H. S. Olcott가 처음으로 Buddhist Catechism에서 통일시켜 놓았으며, Joyce는 이를 접함으로써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된다.: There are many schools of Buddhism and the first attempt to unite them was made by an American, Colonel H. S. Olcott, whose *Buddhistic Catechism* was used by Joyce. (225) 특히 *Ulysses*에 등장하고 있는 'Buddha'[Episode 5], 'Gautama Buddha'[Episode 9]따위는 *Buddhist Catechism*에 나오

교(Hinduism), 「바그바드기타」, 「우파니샤드」⁶⁾ 등을 비롯한 동양의 신비주의(Eastern mysticism) 및 이단적 크리스티교인 그노시스주의(Gnosticism [esoteric salvatory knowledge]), 해브루 신비주의인 카발라(Kabbala[Jewish esoteric mysticism]), 17-8세기 연금 마술 비밀결사 단체인 장미십자회(Rosicrucianism), 프리메이슨단 주의(Freemasonry) 따위의 서구 신비주의적 전통에서 그 연원의 일말을 찾을 수 있다.

But the richest and most profound source of Theosophical views has been Indian thought, where they may be traced from the earliest scriptural Vedas through the Upanishads and the *Bhagavad-Gita*(Song of the Lord) to modern times. Elements of Theosophy may also be found in the other Asian religions, especially in Islamic Sufism, Buddhism, and Taoism.

(Encyclopaedia Britannica On-line Edition, 1996)

결국 브누프(Eugene Burnouf)가 언급했듯이 '19세기의 가장 중대한 사건은 동양의 종교 철학을 서구의 인식 세계에 소개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쇼펜하우어의 예언을 실현시킨 사태가 바로 신지학⁷⁾의 출현이었다(Tuck 7) 한편, 길버

는 다음의 대목과 일치하고 있다: 'Sakya Muni, or Gautama Buddha...is an historical personage and his name was Siddhartha Gautama.'(225)

- 6) 고대 힌두사회를 배경으로 수 천년을 거치면서 발전·형성되어온 여러 종교분파들을 포괄하는 말이 Hinduism이며 최고의 경전으로는 Veda(기도 및 찬가집)를 꼽을 수 있다. 여기에 Upanishads가 추가되는데, 이는 기원전 600-30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Vedanta' —As Keith points out, the focus of European attention during the late nineteenth and early twentieth century was overwhelmingly on Vedanta. (Tuck 24)—라고도 불리며 '윤회'(samsara)와 '업'(karma)교리를 담고 있다. 한편 '거룩한자(Bhagavad)의 노래(Gita)'인 「바그바드 기타」는 본래 인도의 유명한 대서사시 '마하바라타'(Mahabharata) 제 6권 의 일부로 1785년 Charles Wilkins의 영어번역이 나온 이래 서양의 거의 모든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인도의 '영적지혜의 보석'으로 인정되고 있는 힌두교 경전집이다. 이에 관련해서는 '함석헌 주석, 바그바드 기타. 서울: 한길사, 1997, 21-3.'
- 7) 1875년 "evolution, man's constitution, karma and reincarnation, after-life states"를 표방한 신지학(Theosophy)은 러시아 태생의 신비주의자 Mme Helena Petrovna Blavatsky(1831-91)와 미국인 변호사 Henry Steel Olcott에 의해 창설된 것으로 전환기의 혼란한 상황하에 놓인 서구인들에게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 준 사태로 간

트(Gilbert)는 조이스 작품 속에서 목격되는 업(*karma*), *pralaya*, 윤회(*metempsychosis*), *manvantara*⁸⁾ 따위의 불교적 개념의 전거(典據)를 블라바츠키(Madame Blavatsky)의 *Isis Unveiled*(1877) 및 시네트(A. P. Sinnett)의 *The Occult World*(1881), *Esoteric Buddhism*(1883)에서 찾고 있다.

This consideration of the influence of Theosophy on Irish authors would not be complete without a brief discussion of James Joyce. Although he left Ireland early in the period being examined, he was acquainted with the figures discussed above ... Gilbert Stuart, in his study of Joyce, cites Madame Blavatsky's *Isis Unveiled* and works by Sinnett as sources of Joyce's use of the idea of hermetic correspondence as well as such concepts as metempsychosis, *karma*, *manvantara*, and *pralaya*. (Campvill 165-69)

베스파(Jack Vespa)도 『피네간스 웨이크』의 I. 4(The Festy King trial episode)에 관해서 탁견(卓見)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는 조이스가 동양사상 중

주되며, Joyce문학세계에서도 심각한 무게를 지니는 개념이다.

8) *Finnegans Wake*에서 이른바 'number-motif(432/4320)'를 형성하는 중요개념인 'manvantara'는 H. P. Blavatsky의 *Isis Unveiled*(Vol. I 32)에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

● 1st-order cycle:

1st (Kṛta-)Yuga	1,728,000 yrs
2nd (Tretya-)Yuga	1,296,000 yrs
3rd (Dvāpara-)Yuga	864,000 yrs
4th (Kali-)Yuga	432,000 yrs
4,320,000 yrs = one Maha-Yuga	

● 2nd-order cycle:

71 Maha-Yugas	306,720,000 yrs
+ one sandhi	1,728,000 yrs
308,448,000 yrs = one Manvantara	

● 3rd-order cycle:

14 Manvantaras	4,318,272,000 yrs
+ one sandhi	1,728,000 yrs
4,320,000,000 yrs = one Kalpa, or Mahamanvantara	

에서도 「바가바드 기타」, 「우파니사드」 따위의 인도철학을 호홉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작품 속에서도 적극적인 수용자세를 취했음을 밝혀주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시에 『피네간스 웨이크』의 I. 4에서 뚜렷이 드러나고 있는 인도적 색채(Indian Allusions) 즉 종교적, 철학적 암시들은 구성상의 또 다른 모티프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바가바드 기타」는 등장인물과 모티프에 깊이 있는 기조(基調)를 마련해 주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한편, 애스턴(James Atherton)에 의하면 조이스가 「우파니사드」를 작품의 전거로 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the word "Upanishadem (FW 303. 13) appears in II. 2 while "the *Skeleton Key* explains a number of Sanskrit words." Some "are scattered throughout the book; but there is a very noticeable increase in the frequency of the appearance of Sanskrit towards the end of the book" (the *Skeleton Key* focuses on the opening of Book IV). (Verspa 81)

그러나 특정한 단일 전거를 확인할 수는 없다면서 블라바츠키(H. P. B)의 *Isis Unveiled*와 윌킨스(W. J. Wilkins)의 *Hindu Mythology, Vedic and Puranic* 을 또 다른 참고원전으로 제시하고 있으며,⁹⁾ 하트(Clive Hart) 역시 『피네간스 웨이크』에서 「우파니사드」의 역할 비중을 더 강조하고 있다.

"In *Ulysses* Joyce had already made use of the holy syllable of Upanishads, AUM(or OM, as it may also be written), and both the word and the philosophy which it is said to subsume play quite an important part in *Finnegans Wake*." (Jack Vespa 82)

하트(C. Hart)는 또 *Structure and Motif in FW*(London, 1962), 55-6.에서 조이스의 'Mahamanvantara'(the great cycle of eternity) 용례에 대해, "Joyce took his knowledge of eastern world-cycles from the theosophists, particularly Blavatsky's *Isis Unveiled* (Goldman 8)"라 지적하고 있는데, 이 'Mahamanvantara'

9) Atherton은 I.4의 "wilkinnes"(FW 90. 11), and III. 2—"Holdhard till you'll ear him clicking his bull's bones! Some toad klakkin! You're welcome back, Wilkins, to red berries in the frost!"(FW 464. 18-20). 대목에 주목하여 W. J. Wilkins의 *Hindu Mythology, Vedic and Puranic* (Calcutta: Thacker, Spink, 1882)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는 ‘Kalpa[4,320,000,000 years]’ 즉 한자어의 ‘겁(劫)’에 해당되는 순환모형(pattern of cycles)으로 조이스의 중요한 ‘number-motif’ 이른바 ‘432’가 되며 전술한 신지학이 그 연원을 형성하고 있는 바, 『피네간스 웨이크』에서 ‘432/4320 motif’는 ‘...our own vulgar 432 and 1132 irrespectively, why not take the former for a village inn....’(119. 26)와 ‘...ponnippers! Halt there sob story to your lambdad’s tale! Are you roman cawthrick 432?’(486. 2)따위에서 나타나고 있다. 맥휴(Roland McHugh)는 I.4의 ‘바가바드 기타’와의 텍스트 일치점을 확인하고 있는 바, 가장 뚜렷한 부분으로 FW 93. 22-23을 분석하고 있다. 즉 “Artha kama dharma moksa. Ask Kavya for the kay”(93. 22)에서 ‘Artha’는 ‘재산·생계’, ‘kama’는 ‘욕망·쾌락’, ‘dharma’는 ‘진리·의무·도덕율’, ‘moksa’는 ‘절대적 자유’, ‘Kavya’는 ‘시인’의 산스크리트 표기이다.

“And so it all ended. Artha kama dharma moksa. Ask Kavya for the kay.”
 “Kavya” is Sanskrit for “poet,” while Vyasa, the author of the *Gita* (SIP 94), is transposable within “Ask Kavya.” More importantly, “artha”(success), “kama”(pleasure), “dharma”(duty), and “moksa”(enlightenment) constitute the four Indian aims of life if one follows karma-yoga. (Jack Vespa 83)

이러한 ‘바가바드 기타’와 ‘우파니샤드’의 조이스적 변용(Joycean deviations)의 흔적으로 ‘Latin me that, my trinity scholar, out of eure sanscreed into oure erylant!’(215. 26)에서는 ‘Sanskrit’를 ‘sanscreed’로, ‘Upanishadem! Top. Spoken hath L’arty Magory.’(303. 13)에서는 ‘Upanishads’를 ‘Upanishadem’으로 각각 표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베스퍼(Jack Vespa)의 경우 ‘...of being mistakenly ambushed by one of the uddahveddahs, and as close as made no matter....’(85. 3)에서의 ‘uddahveddahs’는 바로 ‘*Bhagavad Gita*’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한편 ‘Buddha’를 지칭하는 표현도 조이스적 변용의 형태로 전편에 걸쳐 기술되어 있다(이하의 내용에서 밑줄은 필자가 표시함).

FW 25.25 ...peace to his great limbs, the buddhoch, with the last
 league long rest of him, while the millioncandled eye of
 Tuskar sweeps the Moylean Main!

FW 59.7 ...she hoped Sid Arthar would git a Chrissman’s portrout of
 orange...

- FW 60.18 ...revealed the undoubted fact that the consequence would be that so long as Sankya Moondy played his mango tricks under the mysttetry....
- FW 234.13 ...son soptimost of sire sixtusks, of Mayaqueenies sign osure, hevnlly buddhy time, inwreathed of his near cissies....
- FW 277 margin Gautamed budders deossiphysing our Theas.
- FW 346.30 'Twill be a rpnice pschange, arrah, sir? Can you come it, budd?
- FW 347.8 ...and higheye was in the Reilly Oirish Krzerszonese Milesia asundurst Sirdarthar Woolwichleagues....
- FW 544.24 ...wears drill trousers and collects rare buddhas, underages very treacly and verminous have to be separated....
- FW 602.27 Rinvention of vestiges by which they drugged the buddhy. Moviefigure on in scenic section.
- FW 620.2 Blooming in the very lotust and second to nill, Budd! When you're in the buckly shuit Rosensharonals near did for you.

지금까지 다루어 본 『피네간스 웨이크』뿐만 아니라 『더블린 사람들』, 『젊은 예술가의 초상』을 포함하여 『율리시즈』를 수놓고 있는 신지학회 관련 인물들, 동양적 언사들은 그러므로 조이스의 신지학 및 동양사상의 수용 범위를 가늠케 하는 척도가 된다. 바로 조이스의 축적된 신지학 관련 지식의 문학적 변용(變容)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신지학 이념의 필터를 통과한 조이스가 불교 사상에 얼마나 천착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사례가 다음의 산스크리트 조합표기에서 극명하게 표출되고 있다(Atherton 224-27).

- FW 24.19 Kapelavaster ← Kapilavastu(붓다의 출생지)
- FW 24.23 clankatachankata ← Kantaka(붓다의 애마)
- FW 59.14 Maha's pranjapansies ← Mahaprajapati(붓다의 계모)
- FW 62.5 Rahoulas ← Rahula(붓다의 아들)
- FW 234.12 Mayaqueenies ← Maya(붓다의 어머니)+May Queen(5월의 여왕)
- FW 347.9 asundurst Sirdarthar Woolwichleagues ← Siddartha(붓다)+Duke of Wellington(웰링턴 공작)+Sandwiches(샌드위치)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조이스문학 세계에 있어서 신지학 및 동양사상의 수용은 나름대로의 무게를 가지고 작품을 떠받치고 있음을 알았다. 결국 조이스의 이러한 수용자세는 소승적(小乘的)견지에서 보건대 조이스 개인의 문학적 윤색(潤色)의 도구로 이해되며, 대승적(大乘的)견지에서 살펴건대 포스트모더니즘적 담론(談論)의 비상구로 연결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그 본질·개념·특성 따위의 전개 과정이 몹시 복잡다단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으로 해서 명확한 구도를 잡기에 여간 불편하지가 않다. 여기에서는 논의의 편의성을 위해 포스트모더니즘의 영역을 다소 제한시켜, 포스트모던 시대의 특징이 다양한 가치와 시각(視角)의 인정에 있다고 한다면, ‘동양적인 접근’에 편승하여 조이스의 작품을 새로이 이해하고자 함은 의미있는 작업일 터이다. 김옥동(1992)은 ‘이합 핫산(Ihab Hassan)과 김성곤(1993)이 포스트모더니즘을 모더니즘과 이합 대립시켜 이분법적으로 범주화하는 것은 허구적인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어느 편인가 하면 양자의 착종(錯綜)이라는 주장인데, 그러나 필자는 논제를 개진함에 있어 이합 핫산의 도식¹⁰⁾ 적용이 편리하다는 판단아래—이 점에서는 이정호(1991)도 같은 입장에 서있지만—출발하고자 한다. 모더니즘이 현전(現前; presence)을 기초로 한 중심화(centering)인데 반하여, 포스트모더니즘은 부재(不在; absence)에 기초한 탈중심화(decentering) 또는 분산화(分散化; dispersal)의 특질을 보인다(이정호 12)는 변별구도는 포스트모더니즘과 선불교논의를 전개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 이유는 모더니즘의 양상이 ‘European, Western’대상이라면, 포스트모더니즘은 ‘global, multicultural’대상이므로 동양의 선불교를 편입시킬 수 있는 공간이 비로소 확보되기 때문이다. 즉 다시 말하자면, 서양이 ‘창세기’에서 시작된다고 할 때 그것은 ‘현전(하느님의 존재)’을 전제한 ‘중심화(성경중심)’일 수밖에 없고, 선불교는 이것과 현저한 대조를 이루는 ‘빈 현전(empty presence) 또는 ‘빈 중심(empty center)이 토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한편 선(禪)불교에서는 달리 열반(涅槃; nirvana)이라고 부르는 ‘비어있음’(空; sunyata)이 곧 윤회(輪廻; samsara, reincarnation)와 동일하다는 것을 종지(宗旨)로 삼고 있거니와, 사우버(Uta Liebmman Schaub)에 의하면 이러한 불교의 근본사상은 데리다(Derrida)와 푸코(Foucault) 등 이른바 해체주의자들의 이분법적인

10) 이 점에 관해서는 Ihab Hassan, “POSTmodernISM: A Paracritical Bibliography” in *PARACRITICISM: Seven Speculations of the Times* (Urbana and Chicago: Illinois UP, 1975), 48-59에 상술되어 있다.

규범의 '해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사실에서 해체주의의 '해체'된 중심과 선불교의 '비어있음'(空)의 중심(Tuck 37)의 만남은 우연의 소산물이 아니라, 푸코나 데리다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수용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이처럼 '빈 현전'(empty presence) 또는 '빈 중심'(empty center)의 선불교적 미학은 선불교 교의(敎義)의 요체를 이루는 다음의 'The Four Great Statements of Zen'에 잘 반영되어있다.

교외별전(敎外別傳): A special transmission outside the Scriptures;
 불립문자(不立文字): No dependence upon words and letters;
 직지인심(直指人心): Direct pointing to the soul of man;
 견성성불(見性成佛): Seeing into one's own nature and the attainment of Buddhahood.

교외별전(敎外別傳; Non-attainment)이라는 말은 '법'(法; Dharma)이나 '본체'(本體; Reality) 또는 진리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가능할 뿐이며 경전(經, text 자체)은 다만 '우리 자신의 진정한 통찰' 즉 자오(自悟; true insights)를 자극하고 환기시키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의미이다. 이 같은 언설은 이합 핫산이 규정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 중에서 '탈정전화'(脫正典化; decanonization) 및 '구축성'(constructionism)에 해당된다. 불립문자(不立文字; Non-assertion)란 다만 문자에의 집착이 없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해서 문자가 진리를 가리키는 방편(方便)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필요 불가결한 것은 견성(見性; realization of one's nature)이다. '견성'은 에피파니(Epiphanyic Revelation)를 경험하는 순간에 성취되는 것으로, 이합 핫산의 '현전 불가능성'(unpresentable) 또는 '재현 불가능성'(unrepresentable) 그리고 '축제화'(carnivalization)에 해당된다. 직지인심(直指人心; Non-relying)이란 마음에 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직접 마음을 실제로 가리키는 것[직지인심]이 아니라 '가리키는 것을 가리킬(pointing to the pointing)'뿐이다. 우리의 사유대상인 마음은 진심(眞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육조혜능(慧能; Hui-neng)은 '무념'(無念)과 '무심'(無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바, 이는 노자(老子; Lao Tzu)의 '무위'(無爲; non-ado)의 개념과도 유사하다. 이합 핫산의 '주체의 상실'(self-less-ness) 및 '행위와 참여'(performance, participation)에 해당된다. 견성성불(見性成佛; All-knowledge)이란 '만물은 우리 안에서 완전하므로 우리의 눈길을 안으로 향하여 우리 자신이 본성에 성실한 것

을 아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다. 자성(自性)은 시간과 공간의 피안(彼岸)에 있으며, 인간의 언어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속성을 초월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합 핫산의 '내재성'(immanence)에 해당된다.

지금까지의 논구에서 확인되었듯이 선불교에는 포스트모더니즘적 양상이 함장(涵藏)되어 있음이 명료하다.

Nothing can be more illogical and contrary to common sense than these four lines. The critic will be inclined to call Zen absurd, confusing, and beyond the ken of ordinary reasoning. But Zen is inflexible and would protest that the so-called common-sense way of looking at things is not final, and that the reason why we cannot attain to a thoroughgoing comprehension of the truth is due to our unreasonable adherence to a "logical" interpretation of things. (Suzuki 58)

같은 맥락에서 조이스의 작품이 비록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 범주에는 속하지 않지만, *The Illicit Joyce of Postmodernism*에서의 데트마(Kenin J. H. Dettmar)의 다음과 같은 주장은 포스트모더니즘적 접근의 가치를 보장해 준다.

McHale's Postmodern Fiction treats the Joyce of *Dubliners*, *A Portrait*, and *Ulysses* as strictly a modernist precursor of postmodern writing; *Finnegans Wake* is the only Joyce text to pass his litmus test for postmodernity.

(Dettmar 14)

계속해서 그는 포스트모더니즘을 두고 그것은 비단 텍스트적 현상(textual phenomenon)만이 아니라 '책읽기'(reading)의 산물이자 과정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조이스 작품의 포스트모더니즘적 접근의 근거를 내놓고 있다.

Texts like *Dubliners*, *A Portrait*, and *Ulysses* are piquant admixtures of both the modernist and postmodernist spirits; and if *Finnegans Wake* approaches something like pure postmodernism, I believe it is proportionally less interesting as a text for that very reason. *Ulysses*, as a text, "combines" postmodernism; and I, as a reader of *Ulysses*, can choose to make much or to make little of that nascent postmodernism. (Dettmar 50)

『더블린 사람들』의 「자매들」은 전통적으로 전편을 관류하는 ‘마비’(paralysis)의 기록서—“Every night as I gazed up at the windows I said softly to myself the word paralysis.”(D 9)로 읽혀 왔다. 데리다의 해체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더블린 시민들의 마비상황은 그들 모두가 중심의 ‘현존’(presence)을 믿는 데서 기인한다(김상호 64). 뿐만 아니라 작가는 플린신부의 죽음—중심의 부재(empty presence)—이 소년에게 끼친 최종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회피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주도면밀한 천박스러운 문체’(style of scrupulous meanness)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점이야말로 ‘해체된 언어’의 미로라는 실험성을 감행함으로써 포스트모더니즘의 양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해체된 중심은 선불교의 ‘비어 있음’(空) 즉 ‘자아’(ātman)의 상실인 셈이다. 더욱이 「자매들」은 ‘unanswered questions’—즉 선불교의 화두(話頭)—로 가득 차있거나 심지어 가장 기초적인 정보조차도 모호하거나 극히 제한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예컨대 독자는 플린 신부의 정확한 사인(死因)이 무엇인지 당혹스러운 지경에 도달한다. 다만 이야기의 첫머리에서 세 번째의 줄도를 당하게 되고 “There was no hope for him this time: it was the third stroke”, 이윽고 ‘마비(중풍)’로 죽게 되었음을 알게 된다 “But then I remembered that it had died of paralysis”. 이러한 점들은 모두 독자의 ‘열린 결말’을 유도하는 포스트모더니즘적인 특징을 이루는 요소들이다.

한편 조이스의 ‘문학 전략으로서의 에피파니(Epiphanic Mode)’에서 선불교의 돈오(tun-wu)사상이 침전되어 있음을 밝히는 작업이야말로 조이스 문학의 포스트모더니즘적 탐색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점을 도출하기 위한 전초작업으로 우리는 불교사상의 핵심개념이라 할 수 있는 업(業; Karma)과 윤회(輪廻; Metempsychosis)의 일별이 필요하다. 조이스는 『율리시즈』의 「칼립소」장에서 ‘윤회’(Metempsychosis)라는 불교적 개념을 처음 선보이고 있다 “Bloom’s explanations of metempsychosis, adds hints of ‘transmigration, reincarnation’, and renewal of fertility to Joyce’s revival of Homer”(Tindall 151). 즉 블룸이 무의식적으로 스티븐이 바닷가에서 추구하던 초기의 프로테우스적 변용의 우화—“God becomes man becomes fish becomes goose becomes featherbed mountain.”(만일 인간이 동물과 나무들로 변할 수 있다면, 왜 신과 영웅들도 변하지 않겠는가?)—를 반복하는 대목이 나오는 바, 이 ‘Metempsychosis’의 용례는 블라바츠키의 *Isis Unveiled*에서 시사를 얻은 개념이다(김종건 177-8).

The kabalistic axiom, "A stone becomes a plant, a plant an animal, an animal a spirit, and a spirit a god," receives an explanation in Manu's *Manava-Dharma-Sastra*, and other Brahmanical books. (Vol 1, 37)

‘Metempsychosis’(Reincarnation)는 또한 19세기 말 신지학자들의 진보적 진화론(the progressive evolution)의 원리로 작용하는 근본 개념이기도 하다.

The Theosophical view of human destiny is made complete, and its theodicy presented in the twin concepts of reincarnation and *karma*. The eternal element in the individual evolves or develops by a descent into matter followed by an ascension...It is not the body that reincarnates, for it too disintegrates after death...It is the Higher Triad of Manas, Buddhi, and Atma, the real man, which survives death. They are the immortal part of man. (Campbell 68)

한편 업라는 말이 서구에 알려지게 된 것도 역시 19세기 신지학자들에 의해 중요한 자연법칙(the laws of nature)의 하나로 인식되면서부터이다. 이처럼 업과 윤회는 서로 따로 떼어내어 설명하기 곤란한 이른바 ‘twin doctrines’이다.

Karma is an unfamiliar word for Western ears. It is the name adopted by Theosophists of the nineteenth century for one of the most important of the laws of nature. It is the twin doctrines to reincarnation. So inextricably interlaced are these two laws that it is almost impossible to properly consider one apart from the other. (William Q. Judge, *The Ocean of Theosophy*)

그런데 윤회(輪廻)의 원어 *samsara*는 ‘변천한다’, ‘흐른다’(sam-sr)를 원의(原義)로 하고 있는 개념이며, 업(業; *karma*)은 ‘짓다(kr)’, ‘행위하다’를 어원으로 하는 개념이다. 이 업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서 힌두교의 성전 「바가바드 기타」에도 ‘어느 누구라도 한 순간 만이라도 결코 행위(karman)하지 않고서 살수가 없다. 사람마다 자성(自性)에서 생기는 성질에 의해 행위(karman)를 강요당하기 때문이다.’라고 실려되어 있다. 요컨대 인간의 삶이란 업(業)이다. 물론 역사·사회적 구조의 소산물이라는 의미에는 이미 개인의 내면화된 종래의 ‘업’설에도 내재되어 있다. 이 ‘업즉구조’(業即構造)는 다시 불교의 보편 진리인 연기(緣起)¹¹⁾로 전개된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사회적 구조를 보는

유일한 준거가 된다. 인간 자체가 구조적으로 사회를 떠나 살 수 없다는 전제 아래 연역된 시각(視角)이며, 또한 연기의 상관성을 주축으로 한 존재상(存在相; dhammata)의 인식이다. 따라서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사회적 구조'라는 틀 속에서 총체적으로 파악된다.¹²⁾

조이스가 '도덕적·정신적 마비(paralysis)'의 중심지로 보았던 더블린이라는 '사회·역사적 조건'은 마야(Maya; illusion)의 무대를 말하는 것이며, 그 속에서 기생하는 인간 군상(Dubliners)들은 '무명'(無明; avijjā)¹³⁾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윤회(輪廻; Metempsychosis)의 굴레—조이스가 말하는 이른바 '전통적 올가미'(traditional noose)인 가정·조국·종교에 속박된 채—에 허덕이고 있는 자들인 것이다. 조이스는 이처럼 업의 속박에서 무명(avijjā)을 밝히지 못한 채, 침윤(沈輪)의 생중사(生中死; death in life)를 영위해가고 있는 '텅 빈 인간'(hollow man), '박제(剝製)된 인간'(stuffed man) 군상들의 만다라(蔓荼羅; Mandala)를 '천박하리만큼 꼼꼼한'(scrupulous meanness)한 스타일로 그려 나갔던 것이다. 「자매들」의 소년에게 있어 마비(paralysis)라는 말은 유클리드 기하학의 'gnomon'과¹⁴⁾ 교리문답서의 'simony'¹⁵⁾라는 말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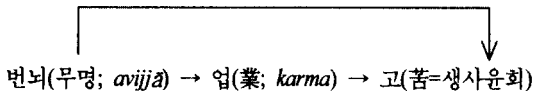
11) 연기(緣起)란 '인연소기(因緣所起)'의 준말로써 특히 인(因)보다 연(緣)에 비중을 두어 설명한 불교의 독특한 술어이다. 'paṭiccasamuppāda'는 'paṭicca(=dependent on)+sam(=with)+uppāda(=arising)'의 뜻인데, 서로 인(因)이 되고 과(果)가 되어 [연(緣)하여], 공존함을 일컫는 말이다. 이 연기(緣起)의 공식은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고(此有故彼有), 이것이 생(生)함으로써 저것이 생(生)한다(此生故彼生), 이것이 없음으로써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써 저것이 멸한다(此無故彼無, 此滅故彼滅)'는 것이다. 인과(因果)작용은 일방향 즉 '원인→결과/행위자→결과자'의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Joanna Macy는 다음과 같이 'Linear Unidirectional Casual Paradigm'을 제시하고 있다: 'As the words suggest, we refer here to a one-way flow of influence from the cause A to the effect B. "A → B" The direction of causal efficacy is from the producer to the produced, from the action of the agent or actor to its results in the acted-upon.—Joanna Macy, *Mutual Causality in Buddhism and General Systems Theory: The Dharma of Natural Systems*(Albany: New York State UP, 1991), 9.

12) 진열 역, *업 연구: 업의 원리와 그 재해석* (서울: 경서원, 1988), 217-47.

13) '어리석은 마음', '어두컴컴한 마음'을 무명(無明; avijjā)이라 한다. T. W. Rhys Davids와 William Stede는 자신들의 Pali-English Dictionary에서 무명(avijjā)을 "the primary cause of all existence"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Macy 49)

14) 'gnomon in the Euclid'는 평행사변형에서 한 각을 포함하는 그 짧은꼴을 떼어낸 나

의 화두(話頭)¹⁶⁾로 작용하여 필경에는 현실적 마비의 질곡으로부터 에피파니(Epiphanyic Revelation)로의 길을 열어준다. 조이스의 의도는 단순히 아일랜드의 도덕적 마비의 주제를 작품 속에서 다루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적·역사적 조건’의 소산물인 더블린의 인간 군상들이 업장(業障)의 윤회를 넘어서 결국 자아인식의 최종적 단계인 ‘돈오’(頓悟; *tun-wu*)에 이르는 구도를 마련하고 있다. 즉 선불교에서 ‘돈오’(頓悟; *tun-wu*)체험의 전제(前提)가 ‘무명’(無明; *avijjā*)이듯이, 조이스의 경우 ‘마비’(paralysis)의 와중에서 순간적인 ‘현현’(顯現; *epiphany*)을 경험하는 인물들을 그려내고 있다. 이처럼 『더블린 사람들』에 있어서 마비(paralysis)의 문제는 각 단편들을 이해하는데 근간이 되고 있다. 마비는 곧 선불교에서의 무명(*avijjā*)이라는 말과 유사하며, 이 무명으로부터 고(苦; *dukkha*)가 생겨나서 업보(*karma*)를 받아 생사윤회(reincarnation)를 하게 되는 것이다. 『더블린 사람들』에 등장하는 인간 군상들의 정신적·도덕적 마비의 양상은 더블린이라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자신들의 ‘번뇌’(kleśa)와 ‘무명’(avijjā)을 직접원인으로, ‘업’(karma)을 보조원인으로 ‘생사 윤회’(saṃsāra)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머지 꼴(김종건 20)로 정의되는데, 이는 곧 ‘지성의 마비’를 암시한다. (김상효 65): in geometry, a *gnomon* is that part of a parallelogram which remains when a similar parallelogram is taken away from one of its corners. (R. Scholes & W. Litz 458)

- 15) ‘simony in the Catechism’은 성직·면죄부·교회의 이득을 매매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도덕적·정신적 마비를 상징하는 말이다. (김상효 65): *simony* is wordly traffic in spiritual things, such as the medieval practice of buying or selling ecclesiastical preferments. In the Roman Catholic Catechism *simony* is listed as one of the sins against the First Commandment. (R. Scholes & W. Litz 458)
- 16) 화두(話頭)는 다시 공안(公案; *kōan*)이라고도 하며 ‘선의 진리에로 눈을 열어가게 하는 수단’을 뜻한다. 공안은 ‘公府案牘’의 약칭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심재룡 역, *아홉 마당으로 풀어쓴 선* (서울: 현음사, 1986), 153.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그 원전은 D. T. Suzuki, *An Introduction to Zen Buddhism*(New York: Grove Press, Co., 1964)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김종전 교수는 『더블린 사람들』의 각 단편들은 다음과 같은 일관된 진전(development)의 순서를 가짐으로써 전체 이야기들의 공통된 구조(structure)에 기여한다고 밝히고 있다:

환상 ————— 현실 ————— 환멸

「자매들」의 첫 문장 ‘There was no hope for this time: it was the third stroke.’는 인과(因果)작용의 시작(因)을 암시하며, ‘But then I remembered that it had died of paralysis.’는 연기(緣起)작용의 끝(果)을 알리는 문장이다. 소년은 플린 신부의 죽음이 그 신부를 둘러싼 마야의 질곡 때문—즉, 성배를 깨뜨린 행위(karma)는 종교의식의 위배라는 연기(緣起)의 공식—이라 인식하고 비로소 이야기 초반부에서 되새기던 paralysis, gnomon, simony라는 화두(話頭)는 에피파니(Epiphanic Revelation)를 경험하는 순간에 내려놓는다. 이는 선(禪)불교에서 무명(avijjā)의 베일이 견혀지고 순간적으로 깨달음을 얻는 돈오(tun-wu)의 양상과 일치한다.

이런 논지들을 바탕으로 『더블린 사람들』의 불교적 환경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The Scheme of *Dubliners*

	Textual Outline	Buddhistic Milieu
Theme	Moral paralysis of Ireland	<i>Māyā</i> (illusion)
Purpose	Spiritual liberation of Dublin	<i>Nirvāṇa</i> (Epiphany)
Form	Collection of stories	<i>Sūtra</i>
Structure	Progress from childhood to maturity and public life	<i>Sarisaṅga</i> (Metempsychosis)
Atmosphere	Special odour of corruption	<i>Karma</i>
Style	Scrupulous meanness	<i>Zen/Ch'an Kōan</i>
Trend	Occident	Orient

한편 호거트(Matthew Hodgart)는 『더블린 사람들』의 각 단편들을 다음과 같은 ‘Ethical Framework’—The Seven Deadly Sins와 The Four Cardinal Virtues

—로 구성하고 있는데(Hodgart 45), 이것은 다시 불교의 ‘Ten Fetters of Existence’와 ‘Ten Perfections[Paramis]’에 각각 배당시켜 이해를 도울 수가 있다.

The Seven Deadly Sins

After the Race(Pride)
Two Gallants(Avarice)
The Boarding House(Lechery)
A Little Cloud(Envy)
Counterparts(Anger)
Clay(Greed)
A Painful Case(Sloth)

Ten Fetters of Existence

Self-delusion
Greed for Fine Material Existence
Conceit
Sensuous Lust
Ill Will
Greed for Immaterial Existence
Clinging to Ritual

The Four Cardinal Virtues

Ivy Day in the Committee Room(Courage)
A Mother(Justice)
Grace(Temperance)
The Dead(Wisdom)

Ten Perfections

Energy
Resolution
Loving Kindness
Wisdom

『더블린 사람들』에서의 마비 양상은 그러므로 주인공 모두가 자기 자신의 전면목을 잊어버린 결과물이며 필연적으로 대립/분열, 자기/타인, 자기/세계 따위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선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이 업이며, 무명이요, 윤회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인식조건이야말로 깨달음에 다가서는 그래서 자기인식에 도달하는 전제가 됨은 물론이다. ‘에피파니’가 그러하고 ‘돈오’가 그렇다.

III

조이스의 문학 영역을 망라하는 지배적 기류인 자연/사실주의와 상징주의를 매개하는 독특한 관념으로서의 에피파니는 자연주의적 색채를 띠고있는 초기의 단편집 『더블린 사람들』에서 후기의 심리주의 소설 『피네간스 웨이크』에 이르기까지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될 뿐만 아니라, 조이스의 예술가적 태도를 엿볼 수 있는 개념이기도 하다(Aubert 32). 에피파니

의 어원분석적 측면에서, 『젊은 예술가의 초상』의 ‘Stephanos Dedalos! Bous Stephanoumenos! Bous Stephaneforos’(167-68)에 등장하는 ‘Stephanos’는 Stephen과 ‘to show’ 또는 ‘to manifest’의 뜻을 갖는 그리스어 phanos가 결합된 것으로 바로 epiphany의 어원이 되며, 동시에 ‘Stephanoumenos’를 ‘Stephen + phanos + noumenon’의 조합으로 볼 때, 조이스의 에피파니는 칸트(Kant)의 ‘noumenon (thing-in-itself)’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David Weir 56). 또한 『피네간스 웨이크』의 “...savvy inside true inwardness of reality, the Ding hvad in idself”(611. 12-13, 20-21) 대목에서 ‘the Ding hvad in idself’는 칸트의 ‘thing-in-itself’(물자체: 物自體), 즉 noumenon을 지칭하는 말이다. 한편 『스티븐 히어로』에서 조이스는 ‘현상으로서의 사물’(phenomenal appearances)로부터 ‘본질적 직관에 의한 현상’(phenomena)을 파악하는 방식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는 바, 에피파니의 개념이 그것이다. 따라서 ‘phenomenal appearances’는 ‘ordinary observation’인 셈이며, ‘phenomena’는 ‘epiphanic observation’을 지칭하는 말이다. 예컨대, 『스티븐 히어로』에서 Ballast Office에 걸린 시계의 ‘whatness’ 즉 ‘quidditas’는 phenomenal appearances(ordianry observation), 다시 말해서 ‘the vestment of its appearance’(Stephen Hero 213)를 벗어났을 때 성취된다는 것이다(David Weir 57). 결국 에피파니(Epiphanic Revelation)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경험 속에 순간적으로 빛나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며, 극적인 외부적 사건보다도 깨달음이라는 내면적 순간에 역점을 두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전개해 온 논의들은 결국 조이스가 ‘the single word that tells the whole story’ 및 ‘the simple gesture that reveals a complex state of relationship’¹⁷⁾에 얼마나 민감했는가를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마침 이 점이 조이스의 에피파니가 선불교의 돈오(Subitism; *tun-wu*)와 상당한 유사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한편 조이스의 에피파니가 아퀴나스(Aquinas)의 미학이론을 원용했음은 주지의 사실에 속하는 바, 『스티븐 히어로』에서 스티븐이 조이스를 대신 하여 이른바 ‘Aquina’s aesthetic principles of unity, harmony, and radiance’를 설명하고 있다.

First we recognize that the object is one integral thing, then we recognize

17) Levin, *James Joyce*, 28., William T. Noon, S. J., *Joyce and Aquinas* (New Haven and London: Yale UP, 1963), 75.에서 재인용.

that it is an organized composite structure, a thing in fact: finally, when the relation of the parts is exquisite, when the parts are adjusted to the special point, we recognize that it is that thing which it is. Its soul, its whatness, leaps to us from the vestment of its appearance. The soul of the commonest object, the structure of which is so adjusted, seems to us radiant. The object achieves its epiphany. (Craig H. Werner 48)

즉, 'one integral thing'은 곧 'integritas (unity)'로서 대상을 다른 것과 구별시켜 전체성을 인식하는 단계를 지칭하는 것이며, 'a thing in fact'는 'consonantia(harmony)'를 말하는 것으로 부분/부분, 부분/전체의 조화를 인식하는 단계를 지칭하며, 최종적으로 'that thing which it is' 곧 'claritas (radiance)'를 인식함으로써 비로소 대상(object)이 에피파니를 성취한다는 설명이 되겠는데, 이러한 에피파니의 세 단계(unity→harmony→radiance)묘사는 선불교에서 선사(禪師)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깨달음에 도달하는 단계 설정과 놀랄 만큼의 일치점이 숨어 있음을 논증하는 것이 필자의 의도라는 것은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다. 선불교에 깨달음의 단계를 설명하는 선사 청원(Ching-yuan; 靑原)의 설법이 나오고 있는 바,

A Master says: "Before a man studies Zen, mountains are mountains to him, and waters waters. But when he obtains a glimpse into the truth of Zen through the instruction of a good master, mountains are no longer mountains, nor waters waters; later, however, when he has really reached the place of Rest (i.e. has attained satori), mountains are again mountains, and waters waters. (Suzuki 13)

청원의 이 설법에는 세 단계의 층계가 제시되어 있다: 《아직 선(禪)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는 산은 그대로 산이고 물은 그대로 물이었다(미참선시 견산시산 견수시수; 未參禪時 見山是山 見水是水). 그런데, 훌륭한 선지식(禪知識)을 친견(親見)하여 깨우침에 들어서고 보니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었다. (내지후래 친견지식 유입처 견산부시산 견수부시수; 乃至後來 親見知識 有入處 見山不是山 見水不是水) 그러나 이제 완전한 설 자리를 찾고 보니 (다시 말해서 깨달음을 얻고 난 후의) 산은 역시 산이요, 물 역시 그대로 물이더라 (이금득개휴헐처 의전 견산지시산 견수지시수; 而今得箇休歇處 依前 見山祇是

山 見水祇是水).》 여기서 ‘見山是山(견산시산) 見水是水(견수시수)’는 아직 깨침이 없는 통속적 견해로서 미혹(illusion)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 단계는 아퀴나스 미학 이론의 ‘*integritas(unity)*’에 해당되는 것으로, 즉 일정한 형태와 성질을 가진 물체가 우리의 의식의 밖에서 우리의 의식 앞에 마주서서 있는 것으로, 말하자면 대상(Gegenstand)으로서 표상(Vor-stellen)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능(能)-소(所), 즉 주(主)-객(客)의 대립—인식 주관에 의한 대상적 파악을 말한다. 그리고 우리는 본래적으로 저 자신 자재(自在)하는 현전 사물의 현실적 세계에 있으면서 이 세계를 표상형태로 대상화하여 개념적인 세계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 의식현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¹⁸⁾ 결국 ‘견산시산(見山是山)’의 ‘견산(見山)’은 이 표상의 체계로서의 세계상 속에서 보는 산이요, ‘시산(是山)’은 우리가 선행적으로 가진 관념적인 사고의 윤곽 속에서 이에 준하여 알고 있는 산인 것이다.¹⁹⁾ 예컨대 스티븐 이 크렌리(Cranly)에게 말한 바와 같이 Ballast Office의 시계도 단순히 능(能)-소(所)대립 관계, 즉 스티븐의 의식 작용 내에서의 그 시계는 인식 주관에 의한 대상적 사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현상의 옷(vestment of its appearance)’을 입고 있는 사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또한 ‘見山不是山(견산부시산) 見水不是水(견수부시수)’는 이제 막 선(禪)의 문턱에 들어선 견해로서 적멸(寂滅)의 세계에 진입한 수준을 말한다. 모든 사물이라는 것은 다만 추상과 논리 기능 따위를 통한 인간의식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감안할 때, 스티븐이 보았던 시계는 역시 환화(幻化; *aura*)에 불과한 것이다. 즉, ‘주-객’ 대립에서 지각되는 대상적 세계와 이를 지각하는 인식주관 및 이 양자사이에서 일어나는 의식계는 모두 ‘주-객’ 대립의 대상적 파악의 입장을 취하는 경우(the rhythm of it's structure)에 한해서만 상대적으로 있는 것이며, 이 상관관계를 떠나서 스스로 실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고형곤 30) 아퀴나스 미학의 ‘*consonantia(harmony)*’에 해당된다. 마지막 단계인 ‘견산지시산(見山祇是山) 견수지시수(見水祇是水)’는 선의 궁극적 경지

18) 실재(實在)는 그것이 그 자체로서 있는 그대로 인간에게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인간 인식 능력의 특별한 방식에 근거하여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는 사물 그 자체(物 자체)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현상으로서의 사물을 파악할 뿐이다. —이기상, 이말숙 옮김, 철학의 뒤편길(서울: 서광사, 1990), 273. 말하자면 epiphanic mode는 실재를 투시하기 위한 방편인 것이다.

19) 고형곤, 선의 세계: 서양철학과 선 (서울: 운주사, 1995), 29-30.

에 도달한 뒤의 깨달음의 견해로서 ‘적(寂)-조(照)’의 세계를 말하며, 여기에서 ‘적(寂)’은 인간 주관에 의하여 표상된 대상의 세계가 단멸됨을 뜻하는 것으로 ‘대상의식만 끊고 나면 바로 그 자리가 깨달음의 자리이므로 맑고 밝은 마음이 본래부터 온 세계를 두루 비추게 된다’는 것인바, 결국 현실을 있는 그대로—눈앞의 현실세계를 관념적 체계로 대치시키지 않고—보는 요오(了悟)의 경지를 일컫는 말로서(고형곤 61), 이 경지는 대상의 형식적 속성(*integritas, consonantia, claritas*)중에서 ‘*claritas(radiance)*’에 해당된다. 조이스가 조국 아일랜드 시민들의 정신적 해방감을 만끽하도록 하기 위해 작품속에 반영시킨 주요 문학적 기법으로서의 아퀴나스 미학이론—*integritas(unity)→consonantia(harmony)→claritas(radiance)*—은 선불교에서 선사들의 깨달음의 과정과 유사함을 알 수 있는 바, 즉 *integritas=cognition=견산시산 견수시수(見山是山 見水是水)*[*unity*]→*consonantia=recognition=견산부시산 견수부시수(見山不是山 見水不是水)*[*harmony*]→*claritas=satisfaction=견산지시산 견수지시수(見山祇是山 見水祇是水)*[*radiance*]로 이해할 수 있다. 요컨데, 조이스 작품속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에피파니(Epiphanic Mode)들은 자아 의식과 주위환경, 주관적인 세계와 강압적이고 조야(粗野)한 객관 세계 사이에서 주인공들이 순간적으로 깨닫게 되는 의식의 각성과 끊임없이 관련되어 나타나고 있다. 선(禪)은 우리 눈앞에 역력히 현전하고는 있으나 무명(無明)으로 가리워져 있을 뿐인 실재를 포착하는 도구가 되며, 이 때 순간적인 돈오에 의해 현현(顯現)하게 되는 바, 이러한 양상을 조이스는 에피파니라 했다. 조이스의 에피파니가 비논리적, 초월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외에도 ‘순간성(sudden)’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선불교의 ‘sudden awakening’과도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원래 선불교는 노장(老莊)의 사유 방식과 선종(禪宗)의 사유 방식을 내향적 관조의 틀 안에 투입시킨 다음, ‘본심(本心)’에 대한 체험을 중심으로 하여 신비적 직관주의(intuitionism)(Faure 45)를 특징으로 하는 매우 독특한 비이성적 사유방식을 형성했던 것이다. 직관적 사색과 관조 속에서는 시공(時空)과 물아(物我)의 일체의 한계와 구별없이 혼재(混在)하며, 시각·청각·미각·촉각들이 서로 통할 수 있고—특히, 에피파니의 특성중의 하나가 시각·청각 따위와 같은 지각 혹은 감각의 원초적 상태와 친화적 관련을 맺고 있음에 착안할 때—본질과 현상의 관계가 서로 뒤집힐 수 있으며, 이것/저것, 안/바깥, 있음/없음 내지는 일체의 분별이 모두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 직관(intuition)에 의한 체험, 순간적

인 돈오(sudden awakening)의 정수를 보여주는 일화가 선가(禪家)에 전해지고 있다(김홍호 81): 선승(zen monk)인 반산(P'an Shan; 盤山)이 어느 날 푸죽간을 지나치다가 푸죽간 주인이 손님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문득 깨닫게 되고, 동산(Tung Shan; 洞山)은 시냇물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돌연 깨달음의 세계에 돌입하며, 백은(Hakuin; 白隱)은 먼 산에서 들려오는 종소리를 듣고 도(Tao)를 깨치게 되는 등 '순간의 돈오'를 말해주는 독특한 사유방식은 예술적 창작과 감상에 있어서는 대단히 소중한 가치가 있다. 마찬가지로 에피파니가 논리적 설명을 거부하고 순간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돈오'와 동일한 개념적 흐름을 타고 있다. 사유방식의 각도에서 고찰한 선종의 돈오는 다분히 신비주의적 색채를 띤 직각인식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개념·판단·추리 따위의 논리적 사유를 필요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경험의 장기적인 누적도 요구하지 않고 오로지 감성의 직관과 순간의 생각에 의해 인식대상을 파악함으로써 'sudden, dramatic and startling moments'를 맞이하는 것을 말한다.²⁰⁾ 이처럼 환상(illusion)—이 말은 조이스에서의 마비(paralysis), 선불교에서의 무명(*avijjā*)에 해당한다.—인 현상세계로부터의 이탈과 그 해방감은 시공의 한 정점에서 성취된다는 사실은 선불교의 이론과 일치하는 점이다. 말하자면 돈오(sudden awakening)는 불교의 'Gordian Knot'를 단번에 끊어버리는 행위인 셈이다. 서론에서 밝힌 것처럼 <epiphany: paralysis:: *tun-wu*(돈오): *avijjā*(무명)>이라는 기본 가설로부터 'epiphany'와 '*tun-wu*'의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무엇보다도 각각의 개념에 내포되어 있는 'sudden'의 의미범주(semantic field)가 논의의 핵심으로 등장하게 된다. 우선 선불교의 입장을 고찰해 보면 그 유명한 육조(六祖) 혜능(慧能; Hui-neng)의 적사(嫡嗣)의 지위를 획득한 하택 신회(荷澤神會; Shen-hui)의 돈오선(*tun-wu chan*)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의 주장에 의하면 '돈'(頓; *tun*=sudden)이나 '점'(漸; *jian*=gradual)에는 시간적인 개념이 없다고 전제한 다음에—이 점은 바로 에피파니의 무시간성 또는 초시간성에 해당되거나와—'점(*jian*)'은 점차로 단계적인 향상을 말하며, '돈'(*tun*=subit)은 일체의 단계나 조건을 무시한 '단번에'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돈오(subitism)는 일념상응(一念相應)하여 자성(自性)을 깨닫는 것으로 시간적인 의미나 개념

20) 선(禪)은 사실에 관여할 뿐, 논리적인 표현이나 언어에 의한 표현 또는 편견에 왜곡된 표현에 관여하지 않는다. '직접적 단순성'이 선의 핵심이다. 선에 있어서 '단순한 마음'은 지적 천착에 얽혀들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심재룡 87)

을 갖는 것이 아니라 ‘비연속의 논리’로서 도약의 의미를 갖는 논리상의 초월을 의미한다는 것이다(정성본 285). 여기에서 돈오를 상식적으로 분석하자면 중생(예컨대, 『더블린 사람들』에 등장하는 마비의 주인공들)들이 즉 부처임을 깨닫는 시간적인 ‘즉각성’ 또는 시간상의 ‘급전회’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강건기 144), 또한 『더블린 사람들』에서도 확인되고 있듯이 인간과 자연과 사회가 한데 얹혀있는데 오직 돈오를 통해서 이른바 물아(物我)융합의 경계로 인간을 이끌어 갈 수 있으며, 물아 융합의 경계로 진입해야만 비로소 잠재의식 속에서 커다란 도약을 하는 비이성적 사유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에피파니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경험 속에 ‘순간적’으로 빛나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Satori is a sudden flash of a new truth.*)인 동시에, 극적인 외부적 사건보다는 깨달음이라는 내면적 ‘순간’에 역점을 두는 것일진대, 그것은 ‘돌발성 · 의외성 · 직접성 · 순간성 · 비논리성 · 직관적 통찰’ 따위의 속성을 필연적으로 지니게 된다. 또한 이는 선적(禪的) 깨달음의 특성—Irrationality; Intuitive Insight; Authoritativeness; Affirmation; Sense of Beyond; Impersonal Tone; Feeling of Exaltation; Momentariness—에도 그대로 해당되는 것이다. 『더블린 사람들』을 위시한 조이스 소설의 대부분이 주인공의 심적 상태를 주제로 하여 삶의 궁극적 진리는 마음 밖의 외부세계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안에서 얻어지는 것임을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언표의 저변에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불교적 심상(心象)이 흐르고 있다. 사실 『더블린 사람들』의 주인공들이 마비의 양상으로 대변되는 ‘환경의 덧’에서 경험하는 에피파니는 선불교의 선사들이 무명(*avijjā*)의 업(*karma*)으로 상징되는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체험하는 돈오(*tun-wu*)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더블린 사람들』에서 수행되고 있는 에피파니의 형식적인 측면을 들여다보면, 케너(Hugh Kenner)의 표현대로 ‘정신적 재생’을 약속하는 ‘creative epiphany’의 전형인 ‘죽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단편들이 삶 속에서의 피할 수 없는 좌절과 환멸적인 상황을 인식하게 되는 ‘negative(empty) epiphany’로 일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Kenner 32), 이는 선불교에서 말하는 ‘업과 윤회’의 운명적인 실존 인식에 다를 아니다. 『더블린 사람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자아(*ātman*)는 원래 무명(*avijjā*)의 소산물이자 더블린이라는 마야(*māyā*)의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며, 그들이 경험하는 ‘sudden spiritual manifestation’은 말하자면 선사들이 ‘sudden awakening’을 함으로써 무명의 안개에 가리우진 자아를 파괴

하고 ‘*Brahman*’—In Kantian terms, *Brahman* was the “thing-in-itself,” the ground of phenomenal appearance(Tuck 25)—을 깨닫게 되어 윤회의 수레바퀴(the wheel of *samsāra*)로부터 해탈(*nirvāṇa*), 즉 돈오(*tun-wu*)를 성취하는 사태와 일치한다. 「에러비」에서 주인공 소년이 이웃집의 맹건(Mangan)누이에게 환상적인 사랑을 품고 그 증표로 선물을 사기 위해 소년의 이상향이 되고 있는 에러비 바자에 가 보지만 그곳은 그러나 죽음의 분위기를 연상케 하고, 그곳 도자기 상점에서 옛들은 남녀간의 비속하고 타락한 대화로 말미암아 주인공 소년은 순간적인 에피파니를 맞이하면서 순수한 사랑과 동경의 꿈이 한낱 허영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주인공 소년의 에피파니가 예기치 않게 ‘순간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점, 바로 그 찰나에 일종의 촉매 역할을 하는 외부적인 자극(청각적 자극)이—도자기 상점에서 흘러나오는 대화—깨달음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 따위는 돈오 사상적 분위기의 증거가 되는바, 선가(禪家)에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송나라 사람 오가(吳可)는 젊었을 때 “시 끝시 끝한 참새가 때때로 와서 적요함을 깨뜨리는 것에 고마워한다.”라는 시구를 배웠으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 묘한 의미를 알 수가 없었다고 했는데 “하루는 대나무 정자에 앉아 있는 데 갑자기 참새 무리가 지저귀며 날아와 내려앉았다. 그 소리에 갑자기 깨쳤다. 그 이후 시를 보아도 통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다(정상홍 외 275). 이처럼 청각 또는 촉각에 의한 외부적 자극이 화두를 내려놓는 촉매 역할을 한 점이 「에러비」에서의 에피파니 경험과 일치한다. 「사자들」에서는 마야의 세계에서 윤회의 수레바퀴를 굴리며 삶을 영위해가고 있는 인간 군상들이 연출할 수 있는 온갖 업보의 양상이 주조(主調)를 이루면서 전편을 흐르고 있다. 특히 가브리엘이 자아중심의 소승적(小乘的)세계로부터 실존적 자각의 여행을 떠남으로써 산 자와 죽은 자 모두와 친교를 맺는 대승적(大乘的)세계로 나아가는 정신적 부활을 부각시킴에 있어서, 작가는 눈을 통해 더욱 극대화시키고 있다. 즉 가브리엘의 ‘순간적인’ 실존의 깨달음은 창밖에 내리는 눈이 촉매역할을 하여 절정(돈오)에 이른다.²¹⁾ 결론적으로 조이스 특유의 에피파니는 선불교의 독특한 사유방식의 하나인 돈오의 분위기가

21) 물론 여기서 눈(snow)은 자아인식의 epiphanic revelation의 순간을 알리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Joyce가 이 눈이라는 매체를 설정한 것은, 가브리엘이 푸리의 죽음을 애석해 하며 흘렸던 ‘관용의 눈물’이 승화되어 하얗게 내리는 것으로 묘사함으로써 정신적 마비를 치유하는 ‘화두(話頭)’로 제시하기 위함이었으리라....

감들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조이스의 에피파니에 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서도 선불교의 돈오 사상적 안목이 필요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

IV

19세기말을 넘기고 20세기의 여명을 바라보던 시기의 유럽대륙은 자연과학과 과학기술 분야에서 괄목할 진보를 보게 되었고, 이는 필연적으로 도덕적·정신적·형이상학적 가치관에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예술분야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전환기의 혼란스런 현실에 질서를 부여하기 위한 정지(整地)작업(Tuck 10)이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그 선봉의 자리에 제임스 조이스가 모더니스트의 옷을 걸치고 우뚝 서 있다. 그의 작품세계는 서구 형이상학의 구조주의적 체계를 해체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성격 또한 지니고 있음으로 해서²²⁾ 기존의 비평도구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오늘의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비이성적인 것’과 ‘부재(不在)의 미학’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은 동양사상적 접근의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사태로 간주되는 바, 본 논문에서는 조이스 문학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동양사상—제한적으로 선불교의 돈오사상(subitism) 및 인도철학—을 포스트모더니즘²³⁾의 대승적(大乘的) 기류에 편승하여 조망해 보았다. ‘어떤 사상이 문학 작품 속에 침전될 때는 작가의 문학적 상상력이라는 여과장치를 통해 반드시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남’(Stallknecht & Frenz 125)을 전제로 할 때, 조이스의 경우 세기말 유럽대륙을 풍미했던 유사불교, 즉 인도불교(「바가바드 기타」와 「우파니샤드」)가 한 지류(支流)를 이루는 신지학의 이념을 자신의 작품에서 문학적 윤색(潤色)의 도

22) 여기서 말하는 ‘서구 형이상학의 구조주의적 체계’란 언어 내지는 개념의 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만을 인정하고, 존재마저도 인간의 눈앞에 지속적으로 현전하는 것으로만 보려는 logos 내지는 이성(理性)중심의 사유방식을 일컫는 말이며, 이에 대한 반동이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해체적 경향이다. -이기상, 추기연 옮김, *하이데거와 禪* (서울: 민음사, 1995), 9. 참조

23) 재론의 여지가 없겠으나, 데카르트의 말중심주의가 니체와 하이데거에 의해 배경 당한 사실을 포스트모더니즘의 배경으로 보며, 이것을 푸코와 데리다가 계승하고 있다. 한편 서구 이성 중심주의가 ‘주체의 현전’을 해체한 사태는 일견 Zen/Ch'an Buddhism의 이념과 동류함을 갖는다.

료(塗料)로 변용시켰음을 새로이 확인할 수 있다. 『피네간스 웨이크』에서 「바가바드 기타」와 「우파니사드」 따위의 인도철학이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과, 조이스의 문학적 전략으로서의 에피파니가 그의 예술정신을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더블린 사람들』의 각 주인공들의 '삶의 편린'(a slice of life)이 내포하는 의미를 '순간적'으로 포착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삶의 근본사상'을 파지(把知)함을 그 목표로 삼고 있는 선불교의 돈오사상과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불교적 탐색은 조이스문학 세계를 더욱 풍부한 지적 활동의 장(場)으로 만드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고려대)

인용 문헌

I. Primary Sources

- Joyce, James. *Dubliners: Text, Criticism, and Notes*. ed. Robert Scholes and A. Walton Litz. New York: Penguin Books, 1996.
- _____, *Ulysses: Student's Edition*. ed. Hans W. Gabler. New York: Penguin Books, 1986.
- _____, *Stephen Hero*. ed. Theodore Spencer. London: The Alden Press, 1956.
- _____, *Finnegans Wake*. New York: Penguin Books, 1976.

II. Secondary Sources

- Atherton, James S. *The Books At the Wake: A Study of Literary Allusions in James Joyce's Finnegans Wake*. London: Faber and Faber Ltd., 1959.
- Attridge, Derek & Ferrer, Daniel. eds. "Introduction: Highly Continental Evenment." In *Post-structuralist Joyce: Essays from the French*. Cambridge: Cambridge UP, 1984.
- Aubert, Jacques. *The Aesthetics of James Joyce*.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P, 1992.

- Dettmar, Kevin J. H. *The Illicit Joyce of Postmodernism: Reading against the Grain*. Wisconsin: Wisconsin UP, 1996.
- Hart, Clive. *Structure and Motif in Finnegans Wake*. London: Faber and Faber, 1962.
- Hassan, Ihab. "POSTmodernISM: A Paracritical Bibliography" in *PARACRITISM: Seven Speculations of the Times*. Urbana and Chicago: Illinois UP, 1975.
- Hodgart, Matthew. *James Joyce: A Student's Guide*. London: RKP, 1978.
- Joyce, Stanislaus. *My Brother's Keeper*. London: Faber & Faber, 1958.
- Kenner, Hugh. *Dubliners's Joyce*. London: Chatto & Windus, 1960.
- Tindall, William. *James Joyce: His Way of interpreting the modern world*.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0.
- Tuck, Andrew P. *Comparative Philosophy and the Philosophy of Scholarship: On the Western Interpretation of Nagarjuna*. Oxford: Oxford UP, 1990.
- Vespa, Jack. "Another Book at the Wake: Indian Mysticism and the Bhagavad Gita in I. 4 of Finnegans Wake." *James Joyce Quarterly*, Vol. 31, No. 2, Winter, 1994.

III. Other Sources

- Campbell, Bruce F. *Ancient Wisdom Revised: A History of the Theosophical Movement*. Los Angeles: California UP, 1980.
- Faure, Bernard. *The Rhetoric of Immediacy*. Princeton: Princeton UP, 1991.
- Kalupahana, David J. *Buddhist Philosophy: A Historical Approach*. Honolulu: Hawaii UP, 1976.
- Macy, Joanna. *Mutual Causality in Buddhism and General Systems Theory: The Dharma of Natural Systems*. Albany: New York State UP, 1991.
- Stallknecht, Newton P. "Ideas and Literature," *Comparative Literature: Methods and Perspective*, eds. Newton P. Stallknecht and Horst Frenz.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P, 1961.

Suzuki, D. T. *An Introduction to Zen Buddhism*. New York: Grove Press, Inc., 1964.

James Joyce Literary Supplement, Fall, 1997.

James Joyce Quarterly, Vol. 31, No. 2, Winter, 1994.

TIME, 6/8/1998.

강전기의 편, 깨달음: 돈오돈수인가, 돈오점수인가. 서울: 민족사, 1992.

고형곤, 禪의 세계: 서양철학과 禪. 서울: 운주사, 1995.

김상효, “더블린 사람들의 유년기 소년들: 중심부재의 인식”, 한국 제임스 조이스 학회 편, 제임스 조이스저널. 서울: 도서출판 동인, 1997.

김성곤, 포스트모던 소설과 비평. 서울: 열음사, 1993.

김종건, 울리시즈 연구 I.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5.

김홍호, 벽암록의 향기. 서울: 품만, 1985.

심재룡 역, 아홉마당으로 풀어 쓴 禪. 서울: 현음사, 1986.

이기상, 추기연 옮김, 하이데거와 禪. 서울: 민음사, 1995.

이재석 옮김, 중국문화개론. 서울: 동문선, 1991.

정명환 외, 20세기 이데올로기와 문학사상.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정성본, 禪의 역사와 禪사상. 서울: 삼원사, 1994.

진열 역, 業 연구: 業의 원리와 그 재해석. 서울: 경서원, 1988.

Abstract

Oriental-Philosophical Coloration in *Dubliners* and *Finnegans Wake*

—Hindu-Buddhistic Allusions in Epiphanic Mode and *FW* Key Episodes—

Dae-Chol Park

Orientation and easting are rich in symbolic meanings of which Joyce was certainly aware. —Brewster Ghiselin

1. Little audacious challenges, among Joyceans critics plus in academic Joycean scenes, have been made in the Oriental-Philosophical elaboration of Joyce's works. There can be little doubt that Joyce's literary sources include the sacred books such as Theosophical doctrines which are fused with Indian allusions(*Bhagavad-Gita* and *Upanishads*) and Zen Buddhism, also a reliable archive of source material, that forms and attribute of postmodernism.
2. Here I dare to delve into a short yet lucid interdisciplinary coincidence between Joyce's works and Oriental thoughts, especially zeroing in on Joyce's derivations of Hindu-Buddhistic Knowledge, surfing with academic wave of *Mahayana* Buddhism.
3. Joyce's definition of epiphanic mode(literary epiphany) as "a sudden spiritual manifestation"(SH 211) is apparently analogous to that of Zen Buddhistic dogma *tun-wu*(Subitism).
4. The best example of above mention is that the number-motif '432' (Mahamanvantara or Kalpa) imbued in *FW*, according to Clive Hart(56), derived from Theosophical doctrines.
5. I mainly shed light on Indian Matrixes of *FW* which is still barely mapped out. My arcuous endeavor, however, is encouraged by Jack Verpa's excellent assertion as "Indian allusions, both religious and philosophical, are also evident in I . 4(The Festy King trial episode). so much so that they comprise another structural motif or principle."(*JQ* Vol. 31, No. 2, Winter, 1994)

I am only at the beginning of a serious study of the Joyce's works, focusing on deciphering recurring Hindu-Buddhistic connotations in *FW* along with Bubbhistic Milieu in *Dubliners*.